전남 볼링 3명 태극마크 '스트라이크'

전남과학대 김동현·광양시청 가수형·곡성군청 김현미 국가대표 선발

구미에서 선발전…최복음 국가대표 후보·백종윤 상비군에 이름 올려

김동현 가수형 김현미 최복음 백종윤

전남 볼링 선수단이 2022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3명, 후보선수 1명, 상비군 1명을 배출했다.

1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북 구미,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김동현(전남과학대 2년)과 가수형(광양시청)이 남자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현미(곡성군청)도 여자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 됐다.

최복음(광양시청)은 국가대표 후보, 백종윤(광양시청)은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남녀 각각 60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하루 8게임씩 6일간 매일 다른 레인패턴으로 경기를 치러 선발된 남·녀 각각 상위 8명에 포함됐다.

2021년 청소년 국가대표였던 김동현은 종합순위 2위, 최종합계 1만1447(에버리지 238.5)을 기록,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가수형(광양시청)이 종합순위 3위, 최종합계 1만1325(에버리지 235.9)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대표에 합류했다.

여자부 김현미(곡성군청)는 대회기간 내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선두자리를 지켰다. 종합순위 1위, 최종합계 1만1274점(에버리지 234.9)를 기록, 지난 2018년 이후 4년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들은 7월 미국 버밍햄에서 개최되는 2022 월드게임에 출전하고 11월 아시아선수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볼링의 살아있는 전설' 최복음은 종합순위 11위, 최종합계 1만1154(에버리지 232.4)로 후보 선수에 합류했다. 백종윤(광양시청)이 종합순위 13위, 최종합계 1만1114(에버리지 231.5)로 상비군으로 국가대표 팀에 발탁됐다.

전남도볼링협회 박종남 회장은 "전남 선수 다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볼링협회는 전남볼링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선우 접영 100m도 1위

제주한라배 52초36 대회신기록

자유형이 주 종목이지만 개인혼영에서도 한국 기록을 보유한 '수영 천재' 황선우(19·강원도청)가 4년 만에 뛴 접영 경기에서도 한국 기록에 근접하는 역영을 펼쳤다.

황선우는 14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사흘째 남자 일반부 접영 100m 경기에서 52초36의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서귀포시청 소속이던 윤석환(부산중구청)이 세운 종전 대회 기록(52초56)을 8년 만에 0.20초 줄였다.

양재훈(강원도청)이 2020년 11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52초33)에는 불과 0.03초 뒤진 기록이다.

자유형 100m와 200m가 주 종목인 황선우가 공식 대회 접영 경기를 뛴 것은 4년 만이어서 이날 기록은 더욱 의미가 있다.

황선우는 자유형을 주 종목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접영과 배영 종목도 병행했다. /연합뉴스

경기력 높이는 스포츠 유전자

유전자 정보 분석해 과학적 훈련·신인 발굴 활용 등 다양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전국 첫 지원사업 착수

김석환 스포과학연구소장이 육상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광주시청)의 유전자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운동선수의 스포츠 유전자를 분석·활용해 경기력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선수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운동능력과 관련한 유전자를 분석, 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체력·근력, 심폐 지구력 등을 러닝머신 등 기자를 활용해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선수들의 유전자를 추적해 운동 능력 향상 여부 등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검체채취를 희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유전자 23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특성을 분석한다. 이들 유전자는 운동의 핵심인 근력, 지구력 등에 관여하는 일종의 세포다. 분석된 스포츠 유전자 정보는 기존에 스포츠과학센터가 보유한 '유전적 표현형(체력측정 및 평가)' 데이터와 '유전자형(DNA)'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된다. 즉, 신인선수 발굴, 전문훈련 과학화, 컨디셔닝 지원을 통한 부상회복 지원 등의 과학적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광주체육고등학교와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및 과학적 훈련지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스포츠과학교실 및 진로직업탐색 교육, 스포츠 유전자(DNA) 분석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작업이다.

특히 신입생에 대한 스포츠 유전자(DNA) 분석 지원은 전국 체육고등학교 중 최초로 지원돼 신인선수 발굴 및 지역 체육발전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자칫 DNA채취가 윤리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쳤다. 최근 전남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IRB)'에 따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광주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며 "전국 최초·최고라는 스포츠과학연구소의 명성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든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배드민턴 안세영,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 보인다

일본 오호리 아야 2-0 완파

광주 코리아마스터즈 8강 진출

지난주 열린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 /연합뉴스

여자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다.

안세영은 14일 광주 광주여자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2022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일본의 오호리 아야를 2-0(21-17 21-16)으로 제압했다.

지난주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상대를 압박했다.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1세트를 21-17로 따낸 안세영은 2세트에선 상대의 코트 곳곳을 활용하는 노련한 공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2019년 대회서 우승한 안세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코리아마스터즈 2연패 및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노린다.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랭킹 3위 천위페이(중국)나 16위 여자민(싱가포르) 등 세계 강호들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가능하다.

여자 단식 이세연(새마을금고)과 남자 복식 서승재(국군체육부대)-강민혁, 혼합 복식 강민혁(삼성생명)-백하나(MG새마을금고)·진용(요넥스)-이유림(삼성생명) 등도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육상 메달 11개' 필릭스 은퇴 예고

SNS에 "내 마지막 시즌이 왔다"

'모범생 스프린터'에서 '여성 인권의 아이콘'으로 영역을 넓힌 앨리슨 필릭스(37·미국·사진)가 은퇴를 예고했다.

필릭스는 14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마지막 시즌이 왔다"고 '2022시즌 뒤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다리가 가늘어서) '닭 다리'라고 놀림당하던 어린 시절에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뛰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내 인생을 바꾼 육상에 감사하다"고 썼다.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2022시즌, 필릭스는 마지막 질주를 펼친다.

그는 딸 캠린을 얻은 뒤, 수없이 강조했던 '여성'을 화두로 마지막 시즌을 보낼 생각이다.

필릭스는 세계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스프린터다. 그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까지 5회 연속 출전해 11개의 메달(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을 수확했다.

전 세계 육상 여자 선수 중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육상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보유했다.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도 필릭스다.

필릭스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따고 은퇴했다.

이미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3개를 목에 건 필릭스는 올해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으면, 기록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구설수 없이, 성실하게 선수생활을 한 그는 '미국이 사랑하는 스프린터'로 불리기도 했다.

필릭스는 2018년 11월 딸 캠린을 얻은 뒤, 더 주목받는 선수가 됐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임신 기간 후원금은 70% 삭감한다"는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은 스포츠계를 넘어 미국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해당 브랜드는 "필릭스와 모든 여성 선수들, 팬들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후원 선수가 임신해도 후원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이후 필릭스를 후원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없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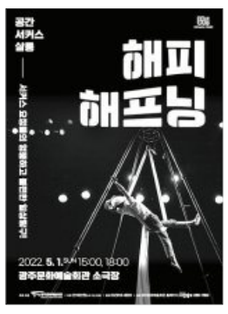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모비우스
2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스텔라
3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앰뷸런스, 말임씨를 부탁해
4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5관	모비우스, 앰뷸런스
6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스텔라
9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수퍼 소닉 2, 모비우스, 그리스도 디 오리진,
7관 씨네커플	스텔라, 말임씨를 부탁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관 씨네커플	뜨거운 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